

지방·광역시로 번진 '전세난' ...부동산 '들썩'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을 넘어 지방·광역시로 확산하면서 각종 부동산 지표가 출렁이고 있다. 특히 부산, 전주, 강원 등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8년 만에 최고로 올랐고, 서울은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는 앞으로 전셋값을 전망하는 지수가 수도권·5대 광역시·전국 등에서 2016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해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급' 기록한 전셋값 상승률... 지방·광역시 위주로 급등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간 단위로 조사하는 아파트 거래 동향 통계에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로 2013년 10월 둘째 주(0.29%)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전세난 회피수요로 증저가 아파트값 '경충' 전국·수도권·대도시 전세전망지수도 '최고'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7년 전 0.2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9%로 역대 최고였다.

바로 한 주 전(11월 첫째 주) 0.23% 상승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한 뒤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것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얼마나 가파른지를 보여준다.

지방 전셋값은 대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크게 뛰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주 전셋값 상승률이 0.35%를 기록하며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울산은 0.56% 올라 전주(0.60%)보다 상승률이 소폭(0.04%포인트) 내려갔으나 역대 2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8개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크게 올라 10월 둘째 주(0.25%) 이후 두 번

째로 높은 0.22%로 집계됐다.

강원도가 0.3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전북 전주소 0.32%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썼다.

경남이 0.28% 올라 2013년 4월 첫째 주(0.2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장원이 지난주 0.62% 올라 역대 최고 상승 기록을 바꿔 썼다.

◇ "전세 사느니 집 산다"...부산·대구·울산 집값도 '경충'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 법 이후 전셋값이 뛰면서 증저가 아파트 매매값을 끌어올리는 현상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정원 조사에서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올해 6

월 넷째 주(0.22%)를 제외하면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2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도 0.39%로 역대 최고였다.

경기도 김포가 전주 1.94% 올라 역대 최고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1.91% 올라 2주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파주의 상승률도 0.47%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부산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0.56%로, 역대 최고였다.

◇ "앞으로가더 문제"...전국·수도권 전세가격전망지수도 '최고'

최근 전세난은 전세 물량 부족에 새 임대차 법의 부정적인 효과가 겹치면서 나타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산 값에 놀라있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잠금 현상이 심화했고,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도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듯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감정원의 주간 조사에서 지난주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23.8,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앞으로의 전셋값을 예상하는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달 전국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31.7로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138.6)을 비롯해 부산(123.2), 대구(144.1), 인천(134.6), 광주(112.2), 울산(138.6) 등이 모두 조사 이후 최고 지수로 나타나 앞으로 전세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020 과학문화콘텐츠 페스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6일부터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에서 '2020 과학문화 콘텐츠 페스타'를 운영한다.

'생각보다 가까운, 우리 일상 속 과학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타에서는 '미래 과학문화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과 '내가 뽑는 올해의 과학문화 콘텐츠' 등 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 과학문화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은 내 주변에서 체험하고 싶은 과학교육 프로그램, 과학강연·공연·전시, 과학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국민이 직접 기획·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12월 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10개를 선정,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12월)'에서 국민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한미재계회의의 오늘부터 개최

조 바이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한미 재계회의는 최상위 민간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가 17-18일 열린다.

올해 회의는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의 정권 교체기에 열리는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간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총회'를 오는 17-18일 화상으로 연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진행된다.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 한국 측 참석자들을 초청해 미국 측 참석자들과 화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한국 재계에서는 전경련 회장이자 한미재계회의의 위원장인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 한화와 포스코, 효성그룹 측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릉, 배달 수수료 동결

배달 대행업체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전국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를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메쉬코리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돕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새로 계약을 맺는 상점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쉬코리아는 앞으로 AI(인공지능) 추천 매차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 배송을 효율화하고, '부릉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상점 홍보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법정최고금리 연 24→20% 인하

당정, 내년 하반기부터

다들여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연합뉴스



뽀글이 가방 나왔어요

찬 바람이 불면서 일명 '뽀글이'로 불리는 플리스 소재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잉글랜드 패션 브랜드 캄골매장에서는 '뽀글이 가방'을 출시해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중기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 전환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체계를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이같이 바꾸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스마트제조 2.0 전략'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시 1억원, 고도화 추진 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고도화 수준이 높은 스마트공장에

는 최대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5세대(5G)+인공지능(AI)'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공장 1천개를 구축하고 'K-스마트 등대공장' 100개를 만드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등대공장은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공장을 뜻한다. 중기부는 최적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가이드라인(참조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전,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오픈

대형건물 정전 예방 정보 제공

한국전력이 지난 16일부터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의 전력빅데이터를 분석해 특고압 전력설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전기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였다.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는 빌딩, 공장, 상가 등 대형 전력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품질, 전기안전 정보를 휴대폰 앱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한전은 최근 코로나로 현장방문 및 설비점검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원격으로 편리하게 전기품질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구현했다.

매년 여름, 겨울철이 되면 냉난방설비 과부하 등으로 고압아파트 구내 정전이 전국적으로 약 3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우성진 기자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이 우수한 하수처리시설공법 환경엔지니어링 전문업체입니다.

하수처리시설공법, 중수도시설, 건설환경분야 선진국 사례 검증된 기술로 맑고 깨끗한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 - 한성이앤씨(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수질환경전문 공사업



한성이앤씨 주식회사

본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나곡길 84 TEL. 061_381-181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로 26 TEL. 062_416-1819